

석사학위논문

아동의 또래지위와
대인관계성향과의 관계

지도교수 고 명 규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김 은 정

2001년 8월

아동의 또래지위와 대인관계성향과의 관계

지도교수 고 명 규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01년 4월 일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제출자 김 은 정

김은정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2001년 7월 일

심사위원장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초록>

아동의 또래지위와 대인관계성향과의 관계

김 은 정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지도교수 고 명 규

본 연구는 아동의 또래지위와 대인관계성향이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밝히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아동의 또래지위와 대인관계성향간에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낼 것이다.

가설 2. 아동의 또래지위에 따른 대인관계성향은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낼 것이다.

2-1. 인기아는 성별에 따라 대인관계성향 하위영역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낼 것이다.

2-2. 소외아는 성별에 따라 대인관계성향 하위영역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낼 것이다.

2-3. 거부아는 성별에 따라 대인관계성향 하위영역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낼 것이다.

가설 3. 아동의 또래지위와 대인관계성향간에는 유의한 상관을 나타낼 것이다.

* 본 논문은 2001년 8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위원회에 제출된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임.

위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제주도내 초등학교 6학년 아동 522명을 대상으로 하여 질문지를 통해 조사하였고 인기아, 소외아, 거부아로 분류된 300명 중 286부의 질문지를 연구분석의 자료로 삼았다. 이에 대한 자료는 SPSS 프로그램을 활용, 전산처리 하였다.

그 결과를 통해 얻은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기아는 사교-우호적, 독립-책임감적, 동정-수용적, 과시-자기도취적 성향이 강하며 거부아는 반항-불신적인 성향이 강하다.

둘째, 인기아의 경우 남아는 여아에 비해 반항-불신적인 성향이 강한 반면, 여아는 남아에 비해 동정-수용적, 과시-자기도취적, 독립-책임감적, 사교-우호적 성향이 강하다. 소외아의 경우 남아는 여아에 비해 지배-우월적, 반항-불신적인 성향이 강하다.

셋째, 또래지위와 대인관계성향은 인기아일 수록 독립-책임감적, 동정-수용적, 사교-우호적 영역과 정적 상관이 있고 반항-불신적 영역과는 부적 상관이 있다.

본 연구는 아동의 또래지위와 대인관계성향과의 관계를 밝힘으로써 아동의 사회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아동의 또래지위와 성별에 따라 대인관계성향의 하위영역을 적절하게 변화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이를 투입하는 것이 교육적으로 필요함을 시사한다.

목 차

I.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문제와 가설	2
II. 이론적 배경	4
1. 또래집단의 특성과 또래지위	4
2. 대인관계의 개념과 성향 모형	8
3. 아동의 또래지위와 대인관계성향	13
III. 연구 방법 및 절차	16
1. 연구 대상	16
2. 측정 도구	17
3. 자료 처리	21
IV. 연구 결과 및 해석	22
1. 아동의 또래지위와 대인관계성향과의 차이 검증	22
2. 또래지위의 성별에 따른 대인관계성향과의 차이 검증	25
3. 아동의 또래지위와 대인관계성향과의 상관 검증	31
V. 요약·결론 및 제언	33
1. 요약	33
2. 결론	35
3. 제언	35
참고문헌	37
ABSTRACT	40
부 록	43

표 목 차

<표Ⅲ-1> 연구 대상	17
<표Ⅲ-2> 또래지위의 분류	18
<표Ⅲ-3> 대인관계성향 검사의 구조와 내용	20
<표Ⅲ-4> 대인관계성향 검사의 신뢰도	21
<표Ⅳ-1> 아동의 또래지위에 따른 대인관계성향의 차이	23
<표Ⅳ-2> 인기아의 성별에 따른 대인관계성향의 차이	26
<표Ⅳ-3> 소외아의 성별에 따른 대인관계성향의 차이	28
<표Ⅳ-4> 거부아의 성별에 따른 대인관계성향의 차이	30
<표Ⅳ-5> 또래지위와 대인관계성향과의 상관 관계	31



그림 목 차

[그림 Ⅱ-1] 대인관계성향 모형	12
--------------------------	----

부 록 목 차

<부록 1> 교우 관계 조사	44
<부록 2> 대인 관계 성향	45

I. 서 론

이 장에서는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연구문제와 가설을 기술하고자 한다.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학교는 각기 다른 가정환경에서 사회화된 이질적인 아동을 집단적으로 수용하여 새로운 사회화를 시도하는 독특한 체제와 구조를 가진 사회이다. 아동들은 학교 사회에서 일반적인 지식, 태도, 기술을 습득할 뿐 아니라 또래들과의 비공식적 상호작용을 통하여, 또는 교사나 또래들과의 관계를 통하여 사회적 역할을 배움으로써 사회화된다(김병성, 1998).

학교 사회의 기본 단위는 학급으로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은 일반적으로 최소 1년이라는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유지되며 학급 또래집단 내에서 또래관계가 형성된다. 또래관계는 아동으로 하여금 사회적 능력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줄 뿐 아니라 아동이 사회적 문제를 풀어 나가거나 수정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즉 또래 집단은 성공적인 사회적 관계를 학습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기본적인 기술의 발달을 위한 장을 제공해 준다(송미선, 1994).

그러나, 또래집단에서의 집단원과의 관계에는 위계가 존재하게 된다. 즉, 어떤 아동은 인기가 있고 어떤 아동은 인기가 없거나 거부를 당하게 된다(신미희, 1989). 이 기간 동안 학급에 속한 각 아동들은 여러 사회적 상황 속에서 여러 유형의 아동들에게 전형적인 행동 반응 양식인 대인관계성향을 보이게 된다. 학급 내에서 이루어지는 대인관계는 가장 기본적인 동시에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며 이는 아동의 사회성을 나타내주는 지표의 하나인 또래지위

에 반영되리라고 가정해 볼 수 있다.

대인관계성향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중학생을 대상으로 인기아일 경우 애정의 욕구에서 능동적 성향이 강하다는 이주연(1993)의 보고,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유형이 중·고등학생의 대인관계성향에 밀접한 영향을 준다는 방문희(1991)의 보고 등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 대부분이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경우는 대인관계성향과 자아개념의 관계를 다룬 연구들이 있으나(지용식, 1991 ; 김수미, 1997) 또래지위와 관련한 대인관계성향에 대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 이들간의 관계를 통해 또래집단에서 친구들로부터 소외되거나 거부당하는 아동들에게 필요한 행동 반응 양식을 가르쳐서 사회적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획득하도록 하는 일은 교육적으로 필요한 일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아동의 또래지위와 대인관계성향이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밝히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아동의 사회성 지도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문제와 가설

아동의 또래지위와 대인관계성향과의 관계 구명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의 또래지위(인기아, 소외아, 거부아)에 따라 대인관계성향(지배-우월적, 독립-책임감적, 동정-수용적, 사교-우호적, 경쟁-공격적, 과시-자기도취적, 반항-불신적)은 어떠한가?

둘째, 아동의 또래지위와 대인관계성향은 성별에 따라 어떠한가?

이와 같은 연구문제를 구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아동의 또래지위와 대인관계성향간에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낼 것이다.

가설 2. 아동의 또래지위에 따른 대인관계성향은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낼 것이다.

2-1. 인기아는 성별에 따라 대인관계성향 하위영역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낼 것이다.

2-2. 소외아는 성별에 따라 대인관계성향 하위영역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낼 것이다.

2-3. 거부아는 성별에 따라 대인관계성향 하위영역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낼 것이다.

가설 3. 아동의 또래지위와 대인관계성향간에는 유의한 상관을 나타낼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이 장에서는 본 연구와 관련하여, 또래집단의 특성과 또래지위, 대인관계의 개념과 성향 모형, 그리고 이들을 연관지어 아동의 또래지위와 대인관계성향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1. 또래집단의 특성과 또래지위

본 절에서 또래집단과 사회성 발달의 관계, 또래지위의 개념과 분류에 대해 고찰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또래집단과 사회성 발달

아동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그들의 사회적 환경은 급속히 변하고, 가정 밖에서 보내는 시간이 매우 많아진다. 그들의 활동 중심은 학교가 되며, 친구는 아동의 성장 발달에 매우 중요해진다. 친구를 통해 사회 생활에 필요한 여러 방법을 터득하고 자신이 속한 문화의 가치관과 행동규범을 획득하면서 사회화된다(조복희 외, 1999). 특히, 또래집단이라는 관계 속에서 그 구성원들과 상호작용을 통해 자기 중심적인 행동과 태도를 현실에 맞게 변환시키면서 상호 의존, 규칙, 협력, 사회적 요구와 같은 중요한 개념을 이해하여 집단 속에서 필요한 요령을 습득하게 되어 보다 넓은 사회에서 살 수 있는 자질을 기르게 된다(이경우·서영숙, 1984).

또래집단의 역할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긍정적인 면에서 볼 때, 또래집단은 자아 개념의 발달과 자아존중감의 형성을 위한 중요한 활동

무대를 제공하며, 타인의 관점에서 자기 자신을 보게 함으로써 아동이 자신에 대한 견해를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준다. 반면에 부정적인 측면에서 볼 때, 또래집단은 새로 들어온 사람에게 어떤 가치를 강요할 수 있고, 집단에서 지위가 낮은 아동은 그에 저항할 수가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박희숙, 1995). 그러나 또래와 상호 작용하는 동안 생기는 갈등을 스스로 해결하는 과정에서 사회·인지적으로 성장하게 된다(이병립, 1996).

아동의 사회화의 기초는 바로 이러한 또래집단 내의 관계 형성에서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양진희, 1995). 따라서 이 시기에 아동은 부모나 교사보다 또래집단으로부터 받는 인정을 더 중요시 여기게 되고 또래집단의 가치관이 아동의 행동을 결정하는 데 크게 작용한다(박용현, 1985). 그래서 급우들로부터 인정을 받게 된 아동은 타인들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내적 확실성 때문에 긍정적인 자아 개념과 신념, 성역할 개념을 습득하게 되고 반면에 급우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아동은 타인들로부터 회피를 당하거나 따돌림을 받고 있다는 의식으로 인하여 부정적인 자아상을 형성하고, 부적응 행동을 일으킨다(장춘미, 1990).

아동의 사회성 발달과 관련하여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문제는 집단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는 아동들이 왜 계속해서 부적응적인 방법으로 행동하며, 심지어는 더 부정적인 반응을 획득해 나가는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그 이유를 송미선(1994)은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첫째, 또래집단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는 아동은 보다 효율적으로 행동하는데 요구되는 사회적 기술이 결핍되어 있다.

둘째, 또래집단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는 아동은 그들이 또래와의 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미처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의 행동을 변화시키지 않을 수 있다.

셋째, 작은 변화가 일어났을 때 주변의 또래들이 이러한 변화를 지각하지 못하거나 제대로 반응을 해 주지 않는 데 있다. 따라서 인정을 받지 못하는

아동은 자신의 노력이 성공적이지 못하게 되면 원래 자신이 지닌 해결 방법을 계속 사용하게 된다.

위와 같은 이유는 또래 집단에서 인정을 받는 아동이 계속해서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지속하며 자신의 인기를 유지하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또래 관계가 중요한 문제인 것은 인간 발달이란 지속적이며 역동적인 과정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동기의 또래 관계에서 형성된 인성이나 사회적 습성이 청년기와 성인기의 인간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아동기에 원만한 또래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조력해야 한다.

2) 또래지위의 개념과 분류

또래집단에서 연계 되는 아동의 또래지위는 사회적 발달과 깊은 관련이 있다. 또래집단은 비슷한 연령대의 아동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상호 작용하는 2인 이상의 모임으로(최세영, 1996), 또래집단에서의 집단원과의 관계에는 위계가 발생하여 어떤 아동은 인기가 있고 어떤 아동은 인기가 없거나 거부를 당하게 된다(신미희, 1989).

인기도는 사회적 측정 검사를 통해 아동에 대한 또래 아동의 선호 및 수용되는 정도는 말한다.(송미선, 1994). 사회적 측정 검사를 위해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주로 또래 지명과 또래 평정법을 들 수 있다. 연구자는 또래에서의 인기도를 측정하기 위해 또래 지명법을 사용하며 그 결과 분류된 아동의 지위를 또래지위로 보고자 한다.

또래지위의 분류 체계는 학자에 따라 다소 상이하며 송미선(1994)이 정리한 것을 기술하면 아래와 같다.

Moore(1967)는 아동의 지위를 3가지 범주, 즉 긍정적 선택을 많이 받는 인기아(stars), 긍정적 선택과 부정적 선택 모두 받지 않는 고립아(isolates), 그

리고 부정적 선택을 많이 받는 거부아(rejects)로 나누었다.

Gottman(1977)의 사회측정적 지위의 분류도 이와 비슷한데, 그는 유치원 아동을 대상으로 관찰과 교사의 인터뷰를 통해 아동의 사회적 지위를 구분하였다. 즉 인기아동(popular), 긍정적 부정적 지명을 모두 받는 혼합아동집단(mixers), 고립아동(isolates), 그리고 또래와는 잘 어울리지만 교사와는 긍정적 관계를 이루지 못하는 아동(Teachers-negatives), 마지막으로 거부아동(rejects)으로 나누었다.

Peery(1979)는 또래지명에서 받은 긍정적 지명수와 부정적 지명수를 합한 사회적 영향력(social impact), 긍정적 지명수와 부정적 지명수의 차인 사회적 선호(social preference)를 이용하여 또래지위를 좀 더 세분화하였다. 이 두 사회성 지수를 기초로 Peery는 아동을 인기아(popular: 높은 사회적 영향력 점수와 선호점수를 가진 아동), 호감형 아동(amiable: 높은 사회적 선호점수와 낮은 사회적 영향력 점수를 가진 아동), 거부아(rejected: 낮은 선호점수와 높은 사회적 영향력 점수를 가진 아동), 고립아(isolated: 낮은 사회적 선호점수와 낮은 영향력 점수를 가진 아동)로 분류했다.

이와 같은 분류는 Coie, Dodge와 Coppotelli의 연구(1982)에서도 사용되었다. 이들은 아동의 사회적 지위를 사회적 영향력과 사회적 선호를 사용하여 인기아(popular), 거부아(rejected), 고립아(neglected), 그리고 인기아와 거부아 두 집단의 특성을 모두 갖는 양면성아(controversial), 그리고 평균아(average)로 나누었다.

최근의 연구로 올수록 또래지위를 분류하는 데 있어서 단일 차원이 아닌 복합성을 지닌 차원으로 분류체계를 확장시켜 나가는 경향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또래지위는 한 아동이 학급에서 동성의 또래들로부터 또래 지명 받은 결과를 토대로 Coie, Dodge와 Coppotelli(1982)가 제시한 증거에 따라 인기아, 거부아, 소외아로 분류된 것을 말한다. 여기서, 인기아란 긍정 지

명을 많이 받은 아동, 거부아는 부정 지명을 많이 받은 아동, 그리고 소외아는 긍정 지명과 부정 지명 둘 다 적게 받은 아동을 칭한다. 그리고 예비조사 결과 양면성아와 그 외의 또래지위를 지닌 경우의 사례수가 적어 본 연구에서 또래지위는 인기아, 거부아, 소외아로 한정한다.

2. 대인관계의 개념과 성향 모형

본 절에서는 대인관계의 개념을 고찰하고 이를 통해 형성된 대인관계성향 모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대인관계의 개념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대인관계는 소수인, 일반적으로 두 사람 사이의 관계를 의미한다. 요즘 흔히 사용되고 있는 인간관계의 의미는 인간과 인간 상호간의 심리적 관계의 모든 측면을 지칭하는 것이지만, 대인관계는 사람을 대하는 개개인의 보편적인 심리적 지향성이라는 측면에서 인간관계와는 구별된다(안범희, 1979). 그렇다고 해서 대인관계가 막연한 개개인의 대인간의 관점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현선희, 1990).

대인관계에 대한 정의는 학자들 간에 일치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T. Leary(1957)는 대인관계의 행동적인 측면을 강조하여 대인 행동을 다른 사람(실재적 인물, 집단, 또는 상징된 집단)과의 명백하고 의식적이며, 윤리적 이거나 상징적인 것과 관련된 행동이라고 말하고 있다.

Heider(1964)는 대인관계가 소수인, 일반적으로 두 사람 사이의 관계를 의미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에 의하면 개인이 타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타인을 어떻게 지각(perceive)하고 있으며, 타인

에 대해 어떠한 행위를 하는지, 타인이 무슨 행위 또는 생각을 하기를 기대하는지, 타인의 행동에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한 물음이 대인관계의 국면이라고 밝히고 있다.

대인관계에 대한 폭넓은 연구가 매우 중요한 것임을 인정하면서도, 이 방면에 대한 연구는 그리 활발치 못하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대인관계에 주목한 몇몇 학파의 견해를 찾아본다면, 성격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외적 요인으로서 사회 문화적 요인, 특히 가족관계 및 대인관계에 주목한 신프로이드 학파와 자아개념에 근거를 두고 발전되어온 상징적 상호작용주의 학파, 대인지각의 양상에 주목한 현대심리학적 견해들이 있으며, 모방행동을 중시한 행동주의적 입장과 행동주의적 영향을 많이 받아 대면적 대인관계에 주목하여 교환이론을 제시한 Homans(1975)등의 이론이 있다. 또한 대인관계에 대해 어떤 체계적인 이론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개개인이 지니고 있는 지각의 차이가 대인관계의 양상을 결정짓는다는 전제 하에, 즉 개인이 인간관계의 사실들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대인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임을 시사한 인본주의 심리적인 견해도 있다(방문희, 1991).

본 연구의 목적이 아동의 또래지위와 대인관계성향과의 관계를 밝히는 것으로 대인관계에서 드러나는 행동에 주목하여 대인관계를 파악하고자 한다. 따라서, 특정의 개인이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타인에게 반복적으로 반응하는 지속적인 행동으로 대인관계를 정의하고자 한다.

2) 대인관계성향 모형

대인관계의 차원 내지는 성향에 대해 언급한 학자로는 Schutz(1958), Bales(1950), Krech(1962)로 대표되는 신프로이드 학파에 속하는 몇몇 학자들 수 있다. 이들이 연구한 대인관계의 차원들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공통적인 요인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Schutz의 모형이다.

Schutz(1958)는 개개인의 욕구의 강도 및 이를 실현함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지만 모든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세 가지 기본적인 대인관계적인 욕구(소속의 욕구, 지배의 욕구, 애정의 욕구)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가정하고 있다. 이러한 대인적 욕구는 그 영역에서 타인과 만족스러운 관계를 유지하는 일에 목적을 두고 있다.

소속의 욕구는 타인과 상호작용하고 결합함에 있어서 만족스러운 관계를 구축하고 유지하기 위한 욕구로서 긍정적인 소속을 뜻하는 말로는 '결합', '상호작용', '교제', '의사소통', '속함' 등이 있다. 지배의 욕구는 통제와 권력이라는 관점에서 타인과 만족스러운 관계를 구축하고 유지하기 위한 욕구로서 긍정적인 통제를 뜻하는 말로는 '권력', '권위', '지배', '영향력', '지도자' 등이 있다. 애정의 욕구는 두 사람간의 개인적인 정서적 느낌과 밀접히 관련된 것으로 사랑과 호의라는 관점에서 타인과 만족스러운 관계를 맺기 위한 욕구로서 긍정적인 면을 뜻하는 말로는 '사랑', '좋아함', '밀착', '좋은 느낌', '우호' 등이 있다.

둘째, Bales의 집단의 상호작용과정 분석 모형이다.

Bales(1950)는 집단의 상호작용을 분석하기 위해 이를 사회적-정서적 영역(긍정적인 측면 및 부정적인 측면으로 양분됨)과 과업 영역(중립적)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사회적-정서적 영역에 있어서 긍정적인 측면에는 타인에게 도움을 주는 것, 농담하고 웃는 것, 동의하는 것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사회적-정서적 영역에 있어서 부정적인 측면에는 수동적인 거절, 긴장을 보이는 것, 대립을 보이는 것 등이다. 또한 과업 영역은 방향 제시, 의견 제시 등으로 상호작용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일으키는지를 분석한다.

셋째, Krech의 대인적 반응 특성이다.

Krech(1962)는 대인관계성향을 역할 성향(role disposition), 사회관계 성향(sociometric disposition), 표현적 성향(expressive disposition)으로 크게 나누

고 각기의 영역에 4개씩의 하위 영역을 두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역할 성향에 주도권, 지배, 사회적 술선수범, 독립성을, 사회관계 성향에 타인의 수용, 사교성, 우호성, 동정성을, 표현적 성향에는 경쟁성, 공격성, 자의식성, 과시성을 하위 영역으로 두고 있다.

Schutz와 Bales의 모형 등은 Krech의 대인관계성향과 짝지을 수 있다고 안범희(1984)는 밝히고 있다. 즉, Schutz의 세 가지 기본적 대인관계 욕구 중 소속의 욕구는 사회관계 성향에, 통제 of 욕구는 역할 성향에, 애정의 욕구는 표현적 성향에 각기 대응시킬 수 있다고 한다. Bales의 과업 영역은 역할 성향이 포괄하고, 사회적-정서적 영역은 사회관계 성향, 표현 성향이 포괄하고 있다고 한다.

이와 같은 연구를 토대로 안범희(1984)가 설정한 ‘대인관계성향 모형’은 [그림 II-1] 과 같다.





[그림 II-1] 대인관계성향 모형

자료 : 안범희(1984). 대인관계 적절성과 성향검사의 타당도 연구, p. 39.

[그림 II-1]의 대인관계성향 모형에서 'A' 부분은 대인관계 상황에서 그가 어떤 역할을 맡으며, 그의 사회적 관계는 어떠하며, 대인관계 상황에서 그가 상대방에게 취하는 태도는 어떻게 표현되는가를 구분한 영역이며, 'B'의 부분은 각 성향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는 내용을 표시한 것이

다. 즉, 대인관계 상황에서 그가 취하는 역할이 지배적인가 복종적인가, 독립적인가 의존적인가를 구분한 것으로 이러한 내용들이 곧 대인관계성향의 각 요인을 이룬다. 'C'의 부분은 'B'의 정도가 높아지면 'C'의 정도는 자연 낮아지게 된다. 결국 '대인관계성향검사'는 'B'의 요인만으로 구성되게 된다.

연구자는 연구 결과의 일반화를 고려하여 Schutz와 Bales의 모형을 모두 포괄할 수 있는 Krech의 대인관계성향을 바탕으로 안범희가 설정한 대인관계성향 모형을 기초로 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3. 아동의 또래지위와 대인관계성향

한 아동이 또래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또래집단에서 차지하는 사회적 지위는 대단히 중요하다. 본 절에서는 또래지위를 인성이나 성격면에서 결부시킨 연구, 대인관계성향과 자아개념을 결부시킨 연구 그리고, 아동의 또래지위와 대인관계성향과 관련된 선행 연구들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첫째, 또래지위와 관련하여 인기아와 비인기아를 인성이나 성격면에서 연구한 결과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이기환(1972)은 인기아와 피배척아 두 집단간을 학력과 인성면에서 차이를 검증한 결과, 인성면에서 6가지 요인(사려성, 충동성, 안정성, 지배성, 활동성, 사회성) 중 사려성, 충동성, 안정성에서 유의있는 차이를 보였고, 나머지 지배성, 활동성, 사회성에서는 별반 차이가 없다고 하였다. 이에 반해 김복순(1978)은 인기아 집단이 고립아 집단에 비해 지배성, 안정성, 사회성에서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한 바 있다.

또한 정문자와 안진석(1981)의 연구에서 아동을 사회성 측정 검사를 통해 인기아 집단과 비인기아 집단으로 나누어 집단간의 성격 차이를 비교한 연구에서 인기아 집단은 비인기아 집단보다 활동성, 사회성, 안정성에 있어서 높

은 점수를 나타내고 있었다. 유형근(1993)은 인기아는 타집단보다 활동성, 지배성, 안정성, 충동성, 사려성, 사회성이 모두 높다고 하였다. 즉 인성 특성 점수가 높을수록 학급내 또래지위가 상향(인기아)되고, 그 점수가 낮을수록 하향(고립아)되었다. 양진희와 최기영(1996)은 또래집단에서 인기아는 우호성, 적응성, 성취 욕구 등의 행동 경향을 보이는 반면 비인기아는 위축, 혼자 놀기, 친구의 요구 무시하기, 공격적 행동 등 사회적 기술을 효과적으로 습득할 수 없는 특성을 보인다고 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이 시사하는 점은 아동의 또래지위가 개인의 인성 요소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이다.

둘째, 대인관계성향에 대해서는 자아개념과 관련한 연구들이 대부분이고 의사소통 유형과의 관계를 연구한 경우도 있다.

지용식(1991)은 초등학교 학급 내의 대인관계가 아동의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학급 내 대인관계가 지배적, 적의적 관계인 아동의 신체적 자아개념이 높고, 복종적인 아동들의 신체적 자아개념이 가장 낮다고 보고하였으며 신체적, 친애적 관계인 아동의 도덕적 자아개념이 높고, 복종적인 아동은 자아개념이 낮다고 밝혔다. 김수미(1997)는 아동의 자아개념과 대인관계성향과의 상관 관계를 밝힌 연구에서 자아개념의 하위 영역 중, 총자아개념과 사회적 자아개념이 대인관계성향의 하위영역들과 가장 높은 상관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성격적 자아개념과 도덕적 자아개념이 높은 상관이 있다고 보고했다. 방문희(1991)는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유형과 청소년의 대인관계성향과의 관계를 연구한 결과 아버지, 어머니와의 의사소통 유형이 모두 개방형일 경우 독립적-책임감적, 동정적-수용적, 사교적-우호적 대인관계성향과 정적 상관을 나타내며, 반항적-불신적 대인관계성향과는 부적인 상관을 나타낸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아버지, 어머니와의 의사소통 유형이 모두 문제형일 경우에는 지배적-우월적, 경쟁적-공격적, 과시적-자기도취적 대인관계성향과 정적 상관을 보인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들은 대인관계성향이 자아개념과 밀접한 상관 관계가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또래지위에 따른 대인관계성향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안범희(1984)는 남·여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대인관계성향을 연구한 결과, 남자 대학생이 사교적-우호적 성향에서 여자 대학생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였으며 성장지에 따라서는 대인관계성향의 차이가 없다고 하였다. 이와 더불어 대인관계성향 중, 지배적-우월적, 반항적-불신적, 경쟁적-공격적 성향은 대인관계의 적절성에 부정적 요소로 작용함을 밝혔다.

이주연(1993)이 중학생을 대상으로 학급내 인기아와 비인기아의 대인관계성향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 인기아와 비인기아의 대인관계성향은 가입의 욕구(능동, 수동), 통제의 욕구(능동, 수동), 애정의 욕구(능동, 수동) 중에서 인기아와 비인기아 모두 가입의 욕구가 가장 크며, 능동적이라기 보다는 수동적으로 소속되고자 하는 성향을 지닌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기아일 경우에는 애정의 욕구에서 능동적 성향이 강하게 나타났다고 하였다.

지용근(1996)은 초등학교 6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인간관계훈련이 사회성 측정 지위별(인기아, 고립아, 배척아)로 대인관계성향에 미치는 효과를 연구한 결과 인간관계훈련이 인기아의 지배·우월 성향을 증가시켰고, 고립아의 지배·우월, 사교·우호, 경쟁·공격 성향을 증가시켰으며, 배척아의 경쟁·공격, 반항·불신 성향을 감소시키는 데 효과가 있다고 하였다.

안범희(1984)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또래지위에 따라 대인관계성향에서 강하게 나타나는 영역이 있으며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지용근(1996)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인간관계훈련을 통해 개인이 지닌 대인관계성향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선행 연구 결과와 관련하여 아동의 또래지위와 대인관계성향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Ⅲ. 연구 방법 및 절차

본 연구 실시에 따른 연구 대상, 측정 도구, 자료 처리 방법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연구 대상

연구 대상은 제주도 내에 소재하고 있는 초등학교 9개교, 15학급, 6학년생 522명을 임의 표집하여 사회성 측정 검사와 대인관계성향 검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는 2000년 7월 10일부터 7월 12일 사이에 임의로 한 학교를 선정하여 39명의 6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또래지위 분류를 위한 사회성 측정 검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전체 검사 소요시간(약 30분)과 예비조사 대상자(39명)를 Coie 등의 분류 방법을 사용하여 전체 아동 중 인기아(7명), 거부아(5명), 소외아(15명)로 분류되는 비율(67.5%)을 산출하였다. 그 결과 양면성아와 그 외의 또래지위를 지닌 경우의 사례수가 적어 본 연구에서는 인기아, 거부아, 소외아로 연구대상을 제한하였다.

본 조사는 2000년 12월 4일부터 12월 9일 사이에 제주도에 소재하고 있는 초등학교 9개교, 15학급, 6학년생 522명을 대상으로 사회성 측정 검사와 대인관계성향 검사를 실시하였다. 사회성 측정 검사를 통해 인기아(111명), 소외아(99명), 거부아(90명)로 300명이 선정되었다. 선정된 아동의 대인관계성향 검사지를 분류하고 잘못 기재된 경우, 누락된 경우를 제외하여 286명을 최종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연구대상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표Ⅲ-1>과 같다.

<표Ⅲ-1> 연구 대상

구 분	명(%)		
	남	여	계
인기아	50(17.5)	58(20.3)	108(37.8)
소외아	52(18.2)	43(15.0)	95(33.2)
거부아	37(12.9)	46(16.1)	83(29.0)
계	139(48.6)	147(51.4)	286(100.0)

2. 측정 도구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또래지위를 파악하기 위한 사회적 측정 질문지와 대인관계성향에 관한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1) 사회적 측정 검사

아동의 또래지위를 알아보기 위하여 또래지명법에 의하여 황옥경(1997)이 제작한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또래지명에 의한 질문지는 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긍정적인 기준과 부정적인 기준으로 나누어져 있다. 즉 '학급에서 가장 좋아하는 아동' 3명의 이름을 적는 긍정적인 또래 지명과 '학급에서 가장 좋아하지 않는 아동' 3명의 이름을 적는 부정적인 또래지명이 있다.

학령기 아동은 이성의 또래를 부정적으로 평가(황옥경, 1987)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동성의 학급 친구들만을 지명하도록 하여 그 지

명 받은 수로 대상 아동들의 점수를 산출하였다.

또래 지명에 따른 아동의 분류는 Coie, Dodge, & Coppotelli(1982)의 분류 방법을 사용하였다.

또래지위를 분류하기 위해서 각 아동이 받은 긍정적 지명수와 부정적 지명수를 계산하고 이를 표준화된 L(liking) 점수와 표준화된 D(disliking) 점수로 환산하였다. L점수와 D점수의 차를 사회적 선호(social preference : SP)점수로, L점수와 D점수의 합을 사회적 영향력(social impact : SI)점수로 계산하였다.

이에 따른 또래지위의 분류는 <표Ⅲ-2>와 같다.

<표Ⅲ-2> 또래지위의 분류

또래지위	또래지위에 따른 점수 기준
인기아	SP>1.0, L>0, D<0
거부아	SP<-1.0, L<0, D>0
소외아	SI<-1.0, L<0, D<0
양면성아	SI>1.0, L>0, D>0
평균아	1.0>SP>-1.0, 1.0>SI>-1.0
나머지	위의 다섯 기준에 모두 속하지 않는 아동

사회성 측정 검사에 사용된 검사지는 <부록 1>에 수록되어 있다.

2) 대인관계성향 검사

아동의 대인관계성향을 검사하기 위해 안범희(1984)가 제작한 대인관계성향 검사지를 초등학생용으로 지용근(1996)이 수정한 것을 사용하였다.

대인관계성향 검사는 3개 영역, 7차원(하위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84문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표Ⅲ-3>과 같다.

채점 방식은 각 문항에 대해 ‘그런 경우가 없다’는 1점, ‘대체로 그렇지 않다’는 2점, ‘그렇다와 아니다가 반반이다’는 3점, ‘대체로 그렇다’는 4점, ‘언제나 그렇다’는 5점을 부여하였으며 사용된 검사지는 <부록 2>에 수록되어 있다.



<표Ⅲ-3> 대인관계성향 검사의 구조와 내용

영역	차원 (하위 영역)	내용	문항 수	문항번호
역할 성향	1 지배- 우월적	영향력 행사, 지시, 충고, 복 종요구, 자기주장인도, 독단 적, 자만, 지나친 자존감, 권 위적	12	1, 2, 15, 16, 29, 30, 43, 44, 57, 58, 71, 72
	2 독립- 책임감적	과거 판단적, 독자적 수행, 책임의식철저, 수범적, 과업 지향적	12	3, 4, 17, 18, 31, 32, 45, 46, 59, 60, 73, 74
사회 관계 성향	3 동정- 수용적	허용적, 민감, 약자보호적, 타인의 장점 존중, 성심, 포 용력	12	5, 6, 19, 20, 33, 34, 47, 48, 61, 62, 75, 76
	4 사교- 우호적	개방적, 활동적, 친밀, 소속 감, 온화, 친절, 친애적, 동 조적, 협조적	12	7, 8, 21, 22, 35, 36, 49, 50, 63, 64, 77, 78
표현 성향	5 경쟁- 공격적	간섭 싫어함, 자기 싫어함 비판적, 논쟁적	12	9, 10, 23, 24, 37, 38, 51, 52, 65, 66, 79, 80
	6 과시- 자기도취적	자기 노출적, 과장적, 전시 적, 자기자랑, 지나치게 낙 천적, 도취적	12	11, 12, 25, 26, 39, 40, 53, 54, 67, 68, 81, 82
	7 반항- 불신적	불편, 불안, 권위에 도전, 배 타적 반대, 의심, 경계적, 왜 곡, 고립적	12	13, 14, 27, 28, 41, 42, 55, 56, 69, 70, 83, 84

본 연구에 사용된 대인관계성향 검사의 각 하위 영역별 Cronbach α 신뢰도 계수(지용근, 1996)는 <표Ⅲ-4>와 같다.

<표Ⅲ-4> 대인관계성향 검사의 신뢰도

하위영역	지배- 우월적	독립- 책임감적	동정- 수용적	사교- 우호적	경쟁- 공격적	과시- 자기도취적	반항- 불신적
신뢰도계수	.78	.81	.80	.82	.73	.77	.73

3. 자료 처리



본 자료는 SPSS 프로그램에 의해 전산처리 하였다.

첫째, 아동의 또래지위에 따른 대인관계성향의 차이는 F 통계량을 이용한 일원변량분석을 통해 알아보았으며 $P < .01$ 과 $P < .05$ 수준에서 의미있는 관계가 있는지 검증하였다.

둘째, 아동의 또래지위와 대인관계성향간의 성별에 따른 차이는 F 통계량을 이용한 일원변량분석을 통해 알아보았으며 $P < .01$ 과 $P < .05$ 수준에서 의미있는 관계가 있는지 검증하였다.

셋째, 아동의 또래지위와 대인관계성향간의 상관은 Pearson의 상관관계분석을 통해 알아보았으며 $P < .01$ 과 $P < .05$ 수준에서 의미있는 관계가 있는지 검증하였다.

IV. 연구 결과 및 해석

본 장에서는 아동의 또래지위와 대인관계성향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가설 검증을 위해 조사 자료를 통계적으로 분석한 결과와 해석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의 또래지위와 대인관계성향과의 차이 검증

<가설 1> 아동의 또래지위와 대인관계성향간에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낼 것이다.

가설 1은 아동의 또래지위와 대인관계성향과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또래집단에서 아동의 또래지위(인기아, 소외아, 거부아)에 따른 대인관계성향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해 본 결과는 <표IV-1>과 같다.

<표IV-1> 아동의 또래지위에 따른 대인관계성향의 차이

또래지위	인기아(N=108)		소외아(N=95)		거부아(N=83)		F
	M	SD	M	SD	M	SD	
하위영역							
지배- 우월적	31.13	4.83	30.47	5.42	30.61	5.24	.46
독립- 책임감적	36.64	4.35	35.64	4.44	34.68	5.86	3.84*
동정- 수용적	39.69	5.43	37.81	5.97	37.33	6.92	4.16*
사교- 우호적	41.50	6.11	39.34	6.04	37.77	6.90	8.37**
경쟁- 공격적	34.75	6.76	35.01	6.89	35.39	6.35	.21
과시- 자기도취적	33.67	6.19	31.20	6.38	32.20	6.74	3.83*
반항- 불신적	29.79	5.47	30.15	5.66	32.32	5.67	5.33**

* : $p < .05$, ** : $p < .01$

인기아, 소외아, 거부아는 사교-우호적($F=8.37$), 반항-불신적($F=5.33$) 영역에서 $p < .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으며, 독립-책임감적($F=3.84$), 동정-수용적($F=4.16$), 과시-자기도취적($F=3.83$) 영역에서 $p < .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인관계성향 가운데 독립-책임감적 영역은 인기아($M=36.64$)가 가장 높고 소외아($M=35.64$), 거부아($M=34.68$) 순으로 나타났다.

동정-수용적 영역은 인기아(M=39.69)가 가장 높고 소외아(M=37.81), 거부아(M=37.33) 순으로 나타났다. 사교-우호적 영역은 인기아(M=41.50)가 가장 높고 소외아(M=39.34), 거부아(M=37.77) 순으로 나타났다. 과시-자기도취적 영역은 인기아(M=33.67)가 가장 높고 거부아(M=32.20), 소외아(M=31.20) 순으로 나타났다. 반항-불신적 영역은 거부아(M=32.32)가 가장 높고 소외아(M=30.15), 인기아(M=29.79)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인기아, 소외아, 거부아는 지배-우월적 영역과 경쟁-공격적 영역을 제외하고 '아동의 또래지위와 대인관계성향간에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낼 것이다.' 라는 <가설 1>이 수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동의 또래지위에 따라 대인관계성향간에는 독립-책임감적 영역, 동정-수용적 영역, 사교-우호적 영역, 과시-자기도취적 영역, 반항-불신적 영역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인기아의 경우 독립-책임감적, 동정-수용적, 사교-우호적 영역에서 강한 성향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반면 거부아의 경우 반항-불신적 영역에서 강한 성향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지용근(1996)이 초등학교 6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인간관계훈련이 배척아의 경쟁·공격, 반항·불신 성향을 감소시키는 데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와 안범희(1984)가 대인관계성향 중 지배적-우월적, 반항적-불신적, 경쟁적-공격적 성향이 대인관계의 적절성에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한다는 연구 결과를 결부시켜 볼 때, 거부아는 일반적으로 반항-불신적인 표현 성향이 강하며 이러한 성향은 또래집단 내에서 부정적으로 지명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높인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아동을 대상으로 인기아 집단과 고립아 집단 간에 대인관계성향 검사의 하위 영역별 결과를 비교해 보았을 때,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김수미(1997)의 연구결과와는 다른 결과이다.

2. 또래지위의 성별에 따른 대인관계성향과의 차이 검증

<가설 2> 아동의 또래지위에 따른 대인관계성향은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낼 것이다.

2-1. 인기아는 성별에 따라 대인관계성향 하위영역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낼 것이다.

2-2. 소외아는 성별에 따라 대인관계성향 하위영역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낼 것이다.

2-3. 거부아는 성별에 따라 대인관계성향 하위영역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낼 것이다.

가설 2는 아동의 또래지위에서 보여지는 대인관계성향의 성별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해 본 결과는 <표IV-2>, <표IV-3>, <표IV-4>와 같다.

1) 인기아의 성별에 따른 대인관계성향의 차이 검증

인기아의 성별(남, 여)에 따른 대인관계성향의 차이는 <표IV-2>와 같다.

<표IV-2> 인기아의 성별에 따른 대인관계성향의 차이

하위영역	성별 통계 치	남(N=50)		여(N=58)		F
		M	SD	M	SD	
지배- 우월적		31.70	4.62	30.65	5.00	1.25
독립- 책임감적		35.68	4.19	37.48	4.34	4.77*
동정- 수용적		38.10	5.58	41.06	4.94	8.58**
사교- 우호적		40.22	5.11	42.60	6.70	4.20*
경쟁- 공격적		35.54	6.43	34.08	7.01	1.24
과시- 자기도취적		31.96	5.21	35.15	6.61	7.58**
반항- 불신적		31.20	5.55	28.58	5.15	6.43*

* : $p < .05$, ** : $p < .01$

인기아의 경우 성별에 따라 대인관계성향 하위영역 간에 동정-수용적($F=8.58$), 과시-자기도취적($F=7.58$) 영역에서 $p < .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으며 독립-책임감적($F=4.77$), 사교-우호적($F=4.20$), 반항-불신적($F=6.43$) 영

역에서 $p < .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인관계성향에서 여아가 남아보다 높게 나타난 영역은 사교-우호적($M=42.60$), 동정-수용적($M=41.06$), 독립-책임감적($M=37.48$), 과시-자기도취적($M=35.15$) 영역이며 남아가 여아보다 높게 나타난 영역은 반항-불신적($M=31.20$) 영역이다.

이는 인기아의 경우 성별에 따라 대인관계성향이 다름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들이 또래집단 내에서 인기아를 선정하는 이유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즉, 남아의 경우 일반적으로 여아에 비해 어른들의 걱정이나 제재를 받지 않고 거침없이 활동에 참여하도록 양육되기 때문에(최순영·김수정, 1998) 다소 반항적인 면들이 남아들 간에 자연스럽게 받아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2) 소외아의 성별에 따른 대인관계성향의 차이 검증

소외아의 성별(남, 여)에 따른 대인관계성향의 차이는 <표IV-3>과 같다.

<표IV-3> 소외아의 성별에 따른 대인관계성향의 차이

하위영역	성별 통계치	남(N=52)		여(N=43)		F
		M	SD	M	SD	
지배- 우월적		31.76	5.71	28.95	4.69	6.63*
독립- 책임감적		35.21	4.62	36.16	4.20	1.08
동정- 수용적		37.11	6.56	38.65	5.12	1.56
사교- 우호적		38.88	5.51	39.88	6.64	.63
경쟁- 공격적		35.80	7.09	34.04	6.59	1.54
과시- 자기도취적		30.67	6.47	31.83	6.28	.78
반항- 불신적		31.35	5.91	28.74	5.06	5.17*

* : p<.05

소외아의 경우 성별에 따라 대인관계성향 하위영역 간에 지배-우월적 (F=6.63), 반항-불신적(F=5.17) 영역에서 p<.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

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남아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지배-우월적(M=31.76), 반항-불신적(M=31.35) 영역에서 여아의 지배-우월적(M=28.95), 반항-불신적(M=28.74) 영역보다 모두 높게 나타났다. 이는 소외아의 경우 성별에 따라 대인관계성향이 다를 것을 보여주고 있다.

안범희(1984)의 연구에 따르면 위의 두 영역은 모두 대인관계 적절성에 있어서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하는 영역이며 특히 소외아로 선정되는 남아의 경우 지배-우월적, 반항-불신적 영역의 성향이 강하다는 것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3) 거부아의 성별에 따른 대인관계성향과의 차이 검증

거부아의 성별(남, 여)에 따른 대인관계성향의 차이는 <표IV-4>와 같다.

<표IV-4> 거부아의 성별에 따른 대인관계성향의 차이

하위영역	성별 통계치	남(N=37)		여(N=46)		F
		M	SD	M	SD	
지배- 우월적		31.16	4.45	30.17	5.81	.72
독립- 책임감적		34.78	5.46	34.60	6.22	.01
동정- 수용적		37.89	6.99	36.89	6.91	.42
사교- 우호적		38.21	5.67	37.41	7.79	.27
경쟁- 공격적		36.48	5.70	34.52	6.76	1.98
과시- 자기도취적		32.02	6.11	32.34	7.27	.04
반항- 불신적		32.45	6.21	32.21	5.27	.03

<표IV-4>와 같이 거부아의 경우 성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상에서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아동의 또래지위에 따른 대인관계성향은 인기아와 소외아의 경우 성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 거부아의 경우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가설2-1>과 <가설 2-2>는 수용되었으나 <가설 2-3>이 기각되어 전반적으로 ‘아동의 또래지위에 따른 대인관계성향은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낼 것이다.’ 라는 <가설 2>는 수용되었다.

3. 아동의 또래지위와 대인관계성향과의 상관 검증

<가설 3> 아동의 또래지위와 대인관계성향간에는 유의한 상관을 나타낼 것이다.



가설 3은 아동의 또래지위와 대인관계성향과의 상관 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또래집단에서 아동의 또래지위(인기아, 소외아, 거부아)에 따른 대인관계성향과의 상관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상관 관계 분석을 실시해 본 결과는 <표IV-5>과 같다.

<표IV-5> 또래지위와 대인관계성향과의 상관 관계

(N=286)

	지배- 우월적	독립- 책임감적	동정- 수용적	사교- 우호적	경쟁- 공격적	과시- 자기도취적	반항- 불신적
또래지위	.04	.16**	.16**	.24**	-.04	.10	-.18**

** : p<.01

또래지위와 대인관계성향은 독립-책임감적($r=.16, p<.01$), 동정-수용적($r=.16, p<.01$), 사교-우호적($r=.24, p<.01$)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있는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반항-불신적($r=-.18, p<.01$) 영역과 또래지위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있는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기아일 수록 독립-책임감적, 동정-수용적, 사교-우호적인 성향이 강하고, 거부아일수록 반항-불신적 성향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인기아, 소외아, 거부아는 지배-우월적, 경쟁-공격적, 과시-자기도취적 영역을 제외하고 ‘아동의 또래지위와 대인관계성향간에는 유의한 상관을 나타낼 것이다.’ 라는 <가설 3>이 수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V. 요약·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요약과 결론 및 제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요약

본 연구는 아동의 또래지위와 대인관계성향과의 관계를 밝히는 데 목적이 있으며,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의 또래지위에 따라 대인관계성향은 차이가 있는가?

둘째, 아동의 또래지위와 대인관계성향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이상과 같은 연구 문제를 구명하기 위한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아동의 또래지위와 대인관계성향간에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낼 것이다.

가설 2. 아동의 또래지위에 따른 대인관계성향은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낼 것이다.

가설 3. 아동의 또래지위와 대인관계성향간에는 유의한 상관을 나타낼 것이다.

위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본 연구는 제주도 전지역의 초등학교 6학년 아동 522명을 대상으로 하여 질문지를 통해 조사하고 인기아, 소외아, 거부아로 분류된 300명 중 286부의 질문지를 연구분석의 자료로 삼았다.

측정도구로는 또래지위를 분류하기 위해 황옥경(1997)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제작한 사회성 측정 질문지를 사용하였고, 대인관계성향을 검사하기 위해 안범희(1984)가 제작한 대인관계성향 검사지를 초등학생용으로 지용근(1996)이 수정한 것을 사용하였다. 자료 처리 방법은 F 검증(일원변량분석)을

적용하였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의 또래지위와 대인관계성향간에는 사교-우호적($F=8.37, p<.01$), 반항-불신적($F=5.33, p<.01$), 독립-책임감적($F=3.84, p<.05$), 동정-수용적($F=4.16, p<.05$), 과시-자기도취적($F=3.83, p<.05$) 영역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아동의 또래지위와 대인관계성향간에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낼 것이다.' 라는 <가설 1>은 수용되었다.

둘째, 아동의 또래지위의 성별에 따른 대인관계성향은 인기아와 소외아의 경우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 거부아의 경우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인기아인 경우 남아는 여아보다 반항-불신적($M=31.20, p<.05$) 영역에서 높고, 여아는 남아보다 동정-수용적($M=41.06, p<.01$), 과시-자기도취적($M=35.15, p<.01$), 독립-책임감적($M=37.48, p<.05$), 사교-우호적($M=42.60, p<.05$) 영역에서 높게 나타났다. 소외아인 경우 남아는 여아보다 지배-우월적($M=31.76, p<.05$), 반항-불신적($M=31.35, p<.05$) 영역에서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아동의 또래지위에 따른 대인관계성향은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낼 것이다.' 라는 <가설 2>는 수용되었다.

셋째, 아동의 또래지위와 대인관계성향간에는 독립-책임감적($r=.16, p<.01$), 동정-수용적($r=.16, p<.01$), 사교-우호적($r=.24, p<.01$)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있는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반항-불신적($r=-.18, p<.01$) 영역과 또래지위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있는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아동의 또래지위와 대인관계성향간에는 유의한 상관을 나타낼 것이다.' 라는 <가설 3>은 수용되었다.

2. 결론

아동의 또래지위와 대인관계성향과의 관계에 대한 본 연구의 결과로부터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기아는 사교-우호적, 독립-책임감적, 동정-수용적, 과시-자기도취적 성향이 강한 반면 거부아는 반항-불신적인 성향이 강하다.

둘째, 인기아의 경우 남아는 여아에 비해 반항-불신적인 성향이 강한 반면 여아는 남아에 비해 동정-수용적, 과시-자기도취적, 독립-책임감적, 사교-우호적 성향이 강하다. 소외아의 경우 남아는 여아에 비해 지배-우월적, 반항-불신적인 성향이 강하다.

셋째, 또래지위와 대인관계성향은 인기아일 수록 독립-책임감적, 동정-수용적, 사교-우호적 영역과 정적 상관이 있고 반항-불신적 영역과는 부적 상관이 있다.

이상의 결론을 통해 아동의 대인관계성향을 긍정적으로 발달시키기 위해서는 아동의 또래지위와 성별에 따라 대인관계성향의 하위영역을 적절하게 변화시키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이를 투입하는 것이 교육적으로 필요함을 시사한다.

3. 제언

이상과 같은 결론을 토대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대인관계성향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아직 극소수이며 대부분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또래지위에 따른 대인관계성향의 차이와 인기아, 소외아, 거부아의 성별에 따른 대인관계성향의 차이를 조사하였는데 학년이 변함에 따라 대인관계성향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셋째, 아동의 대인관계성향을 긍정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아동의 또래지위와 성별에 따른 개별적인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 김란수(1985). 「교육연구의 방법」, 서울:종각출판사.
- 김병성(1996). 「교육연구방법」, 서울:학지사.
-(1998). 「교육과 사회」, 서울:학지사.
- 김복순(1978). 고립아 특성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수미(1997). 학급 내 인기아와 고립아의 자아개념과 대인관계성향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울산대학교 교육대학원.
- 박희숙(1995). 국민학교 고연령의 대인문제해결력 및 사회성과 학업성취도간의 관계 연구, 석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 방문희(1991). 자녀간의 의사소통유형과 청소년의 대인관계성향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동아대학교 대학원.
- 송미선(1994). 놀이개입상황에 있어서 유아의 또래집위에 따른 사회적 행동과 의사소통 기술,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송혜령(1995). 유아의 또래간 인기도와 대인문제해결 능력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덕성여자대학교 대학원.
- 신미희(1989). 또래관계에서의 인기도와 자아개념 및 사회성숙도간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안범희(1979). “대인관계의 이론 고찰”, 「원우론집」, 제7집, 연세대학교 대학원 원우회.
-(1984). 대인관계 적절성과 성향검사의 타당도 연구,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 양진희(1994). 아동의 또래간의 인기도와 대인문제해결사고와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육대학교 대학원.

- 최기영(1996). “아동의 또래간의 인기도와 대인문제해결사고와의 관계”, 「아동학회지」, 제17권, 제1호, 한국아동학회.
- 이경우·서영숙(1984). 「유아를 위한 사회교육」, 서울:교문사.
- 이기환(1972). 사회적 측정적으로 본 인기아와 피배척아의 특성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병림(1996). 아동의 대인문제해결력과 또래집단에서의 인기도와 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주연(1993). 학급 내의 인기아와 비인기아의 대인관계 지향성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 임정하(1996). 아동이 지각한 또래관계와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 장춘미(1990). 청소년의 대인문제해결력 및 학업 성취도와 또래집단 수용도간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 정문자·안진석(1982). “취학전 아동의 인기도와 사회적 행동 및 어머니의 양육태도간의 관계 연구”, 「아동학회지」, 제3집, 한국아동학회.
- 조복희·정옥분·유가효(1999). 「인간발달」, 교문사.
- 지용근(1996). 인간관계훈련이 대인관계성향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울산대학교 교육대학원.
- 지용식(1991). 국민학교 학급 내의 대인관계와 아동의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관동대학교 교육대학원.
- 최세영(1996). 고교생 또래집단 특성과 학교 관련 태도의 관계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육대학교 대학원.
- 최순영·김수정(1998). 「인간의 사회적·성격적 발달」, 학지사.
- 한국연구평가회(1992). 「교육 연구 및 통계」, 교육출판사.
- 현선희(1990). 중학생의 대인관계성향과 가정의 지위환경, 작용환경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 황옥경(1997). 아동의 대인지각과 문제해결행동 및 또래지위와의 관계, 박사 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 Bales, R. F.(1950). *Interaction Analysis*, Cambridge, Mass : Addison-Wesley.
- Coie, J. D., Dodge, K. A., & Coppotelli, H.(1982). *Developmental Psychology*, New York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ayvren, M., & Hymel, S.(1984). *Developmental Psychology*, New Orleans, LA.
- Krech, D.(1962). *Individual in Society*, New York : McGrawHill.
- Leary, T.(1957). *Interpersonal Diagnosis of Personality*, New York : The Ronald Press Company.
- Moore, S. G.(1967). *The young child*, Washington, D. C. : National Association for the Education of Young Children.
- Moreno, J. L.(1953). *Who shall survive?*, New York : Beacon House.
- Schutz, W. C.(1958). *FIRO : A Three-Dimensional Theory of Interpersonal Behavior*, New York : Rinehart & Company.


ABSTRACT

**The Correlation Between a Child's Status in the Peer Group
And His/Her Inclination in the Interpersonal Relationship**

Kim, Eun-jeong

Counseling Psychology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Cheju,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Ko, Myoung-Kyu

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is to clarify the correlation between a child's status in the peer group and his/her inclination in the interpersonal relationship.

According to this purpose, the following hypotheses were made:

Hypothesis 1. There is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a child's status in the peer group and his/her inclination in the interpersonal relationship.

* A thesis submitted to the Committee of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in August, 2001.

Hypothesis 2. The inclination in the interpersonal relationship, which is dependent on a child's status in the peer group, differs significantly by gender.

2-1. Popular children show a significant difference by gender in the sub-categories of the inclination in the interpersonal relationship.

2-2. Neglected children show a significant difference by gender in the sub-categories of the inclination in the interpersonal relationship.

2-3. Rejected children show a significant difference by gender in the sub-categories of the inclination in the interpersonal relationship.

Hypothesis 3. There is a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a child's status in the peer group and his/her inclination in the interpersonal relationship.

To verify these hypotheses, a questionnaire survey was conducted to 522 children, who were 6th graders in one elementary school in Cheju-do. Out of 300 surveys of the children, who were clarified as popular, neglected, and rejected children, 286 surveys were used in research analysis. The gathered data were computerized using the SPSS program.

The conclusion drawn from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Popular children have a strong inclination for being sociable/amiable; independent/responsible; sympathetic/accepting; and ostentatious/narcissistic, while rejected children tend to be

defiant-distrusting.

Second, among the popular children, boys tend to be more defiant/distrusting than girls, while girls tend to be more sympathetic/accepting; ostentatious/narcissistic; independent/responsible; sociable/amiable. among the neglected children, boys tend to be more dominant/surpassing; defiant/distrusting than girls.

Third, there is a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the peer group status and the interpersonal relationship inclination in the sub-categories of being independent/ responsible; sympathetic/accepting; sociable/amiable in the popular children, but a negative correlation in the sub-categories of being defiant/distrusting.

This study suggests an educational necessity of preparing and implementing the programs to appropriately change the sub-categories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 inclination in accordance with the child's peer group status and gender in order to enhance his/her sociality, by clarifying the correlation between a child's status in the peer group and his/her inclination in the interpersonal relationship.

부 록

<부록 1> 교우 관계 조사 44

<부록 2> 대인 관계 성향 45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부록 1>

교우 관계 조사

()초등학교 ()학년 ()반 이름 ()

이 검사는 시험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같은 반에 있는 친구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아보려는 것입니다.

이 결과는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을 것이므로 마음을 편안히 하고, 정직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다음은 주의하세요>

1. 서로 의논해서 적지 않습니다.
2. 결석한 친구를 적어도 됩니다.
3. 전학 간 친구는 적지 않습니다.
4. 같은 반 안에 있는 친구 중에서만 선택합니다.

1. 만약 자리를 바꾼다면 같이 앉고 싶은 친구를 세 명 쓰십시오.

(주의 : 남자 어린이의 경우 남자 어린이의 이름을, 여자 어린이의 경우 여자 어린이의 이름만을 적습니다.)

--	--	--

2. 만약 자리를 바꾼다면 같이 앉고 싶지 않은 친구를 세 명 쓰십시오.

(주의 : 남자 어린이의 경우 남자 어린이의 이름을, 여자 어린이의 경우 여자 어린이의 이름만을 적습니다.)

--	--	--

감사합니다.

<부록 2>

대인 관계 성향

()초등학교 ()학년 ()반 이름 ()

다음은 여러분이 평소에 친구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이 검사에서는 옳고 그른 답이 없으니 자신이 생각하고 느낀 그대로 답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답한 내용은 학교 선생님이나 다른 누구에게도 알려지지 않을 것입니다.

<답하는 방법>

각 번호의 내용을 읽고, 자신과 일치하는 곳에 V표를 하세요.

<보기>

번호	내용	그런 경우가 없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그렇다와 아니다가 반반이다	대체로 그렇다	언제나 그렇다
1	남들에게 충고나 조언 등을 잘 한다.				V	

감사합니다.

2000. 12. .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김 은 정

*다음 문항들을 잘 읽고 평상시 여러분의 생각이나 행동과 일치한다고 느끼는 곳에 V표를 해 주십시오.

번호	내용	그런 경우가 없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그렇다와 아니다가 반반이다	대체로 그렇다	언제나 그렇다
1	남들에게 충고를 잘 한다.					
2	남들로부터 잘난 척 한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					
3	친구가 지시하는 일은 잘 따르지 않는다.					
4	남으로부터 믿을 만한 사람이란 말을 자주 듣는다.					

번호	내 용	그런 경우가 없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그렇다와 아니다가 반반이다	대체로 그렇다	언제나 그렇다
5	남의 입장이나 처지를 잘 이해해 주는 편이다.					
6	타인을 비판하기에 앞서 이해하려고 애쓴다.					
7	모임에 참석하기를 좋아한다.					
8	남들에게 친절하게 대한다.					
9	경기나 게임에서는 내기를 해야만 신이 난다.					
10	윗사람에게라도 따질 일은 따진다.					
11	칭찬을 받으면 그 일이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다.					
12	어떠한 사람과도 친해질 수 있다.					
13	지도자(반장 등)가 하는 일이 마땅치 않다.					
14	다른 사람을 의심하는 버릇이 있다.					
15	나보다 어린 아이가 버릇없이 굴면 못 참는다.					
16	나는 친구들보다 무엇이든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17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내 주장대로 일처리를 한다.					
18	여러 가지 일을 맡아서 하기를 좋아한다.					
19	남의 기분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길 잘 한다.					
20	남의 약점을 보기보다는 장점을 높이 평가한다.					
21	여러 사람과 같이 어울리기를 좋아한다.					
22	남들로부터 친절하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는다.					
23	남이 좋은 물건을 가지면 나도 곧 갖고 싶어진다.					
24	남과 이야기 할 때 말다툼을 잘 한다.					
25	남의 눈길을 끌기 위해 가끔씩 유별난 행동을 한다.					
26	나의 용모와 옷차림에 대해 자신이 있다.					
27	윗사람이 어떤 지시를 하면 반발심부터 생긴다.					
28	다른 사람이 하는 일은 미덥지 못해 부탁하는 일이 별로 없다.					
29	내가 할 수도 있는 일이지만 부릴만한 사람이 있는 경우 시키길 잘 한다.					
30	내 의견과 틀리면 무조건 반대한다.					
31	남의 도움없이 내 스스로 계획을 세워 일을 처리한다.					

번호	내	용	그런 경우가 없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그렇다고 아니다가 반반이다	대체로 그렇다	언제나 그렇다
32	부탁받은 일은 어렵더라도 꼭 해낸다.						
33	남의 잘못을 너그럽게 이해해 준다.						
34	어려운 일로 친구가 찾아오면 성의껏 의논 상대가 되어 준다.						
35	혼자보다 여러 사람과 같이 있는 편이 좋다.						
36	좋아하는 사람이나 싫어하는 사람을 구분하여 대하지 않는다.						
37	사소한 일이라도 남에게 지고 싶지 않다.						
38	자존심이 상하면 참지 못하고 다룬다.						
39	여러 사람 앞에서 의견을 말하길 좋아하고, 더러는 과장해서 말한다.						
40	친구들은 나를 부러워하는 눈치이다.						
41	나는 집안 식구들로부터 불평이 많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는다.						
42	나에게 잘 대해 주는 사람도 믿지 못한 경우가 있다.						
43	어떤 모임에서나 내 주장대로 하려고 한다.						
44	친구들보다는 모든 면에서 내가 더 낫다는 생각으로 행동한다.						
45	남들의 의견과 관계없이 내 방식대로 일을 처리하며 이에 만족한다.						
46	약속을 하면 상대방보다 먼저 나오는 때가 많다.						
47	경기에서 지는 편을 응원한다.						
48	실수로 당황하는 친구를 보면 격려해 준다.						
49	다른 사람들은 나와 쉽게 친해질 수 있다고 한다.						
50	혼자보다 여럿이서 공부하기를 좋아한다.						
51	어떤 일이건 친구들보다 뒤지지 않으려고 애쓴다.						
52	잘못한 사람이 용서를 빌어야 직성이 풀린다.						
53	남 앞에서 나의 집안 일이나 나의 자랑을 잘 한다.						
54	다른 사람들은 나를 꽤 관심있게 보는 편이다.						
55	남의 묻는 말에 대답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다.						
56	다른 사람의 말을 곧이 곧대로 믿지는 않는다.						
57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몹시 속이 상한다.						

번호	내 용	그런 경우가 없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그렇다와 이나비가 번번이다	대체로 그렇다	언제나 그렇다
58	나는 다른 사람의 의견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59	누가 도와주거나 충고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60	내가 맡은 일은 끝까지 해 낸다.					
61	불쌍한 친구를 보면 도와주기를 좋아한다.					
62	나는 누구와도 친하게 지내려고 노력한다.					
63	다른 사람과 잘 사귀며, 비위도 잘 맞춘다.					
64	내 의견보다는 남의 의견에 잘 따르는 편이다.					
65	남들과 다투는 일이 종종 있다.					
66	남의 잘못을 그 자리에서 즉각 고치도록 충고해 준다.					
67	웃차림에 대해 꽤 신경을 쓰는 편이다.					
68	친구들과 어울리는 경우 내가 얘기를 가장 많이 하는 편이다.					
69	돌멩이나 그 밖의 물건을 차는 경우가 있다.					
70	낯선 사람들을 대할 때는 항상 의심하는 마음이 앞선다.					
71	다른 사람들은 나의 의견을 잘 따른다.					
72	누가 묻는 것에 모른다고 말하기를 싫어한다.					
73	내게 옳지 않는 일은 옳지 않다고 분명히 얘기한다.					
74	남에게 빌린 것은 제때에 돌려주어야 직성이 풀린다.					
75	불쌍한 사람을 보면 도와 주고 싶다.					
76	나에게 잘못된 친구라도 곧잘 어울리게 된다.					
77	처음 만난 사람과도 곧잘 얘기를 나눈다.					
78	여럿이 하는 일에 적극 협조한다.					
79	나보다 뛰어난 친구들을 보면 앞지르고 싶다.					
80	내게 고통을 준 사람에게는 그만큼 고통을 주어야 속이 후련하다.					
81	자그마한 일에도 곧잘 흥분한다.					
82	한참 동안 거울을 들여다 보는 일이 자주 있다.					
83	마음에 안드는 사람의 말은 일단 반대하고 본다.					
84	믿고 의지할 만한 친구가 없다.					

*위의 84문항 중 흑 빠뜨린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감사합니다.